

# 무상급식·월세하락 영향 물가 5개월째 0%대 상승

### 통계청, 2019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서비스물가 상승폭 0.8%대 떨어져  
집세 상승률 2006년 3월 이후 최저  
기재부 "전년 대비 물가 낮은 수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무르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5(2015년=100)로 1년 전 대비 0.7%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0.8% 오르며 1년 만에 0%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2~11월 10개월간 0%대를 유지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2월(0.5%), 3월(0.4%), 4월(0.6%)에 비해 선 다소 올랐다. 다만 5월만 높고 보면 2015년 5월(0.6%)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0.3% 올랐다. 공업제품 가격이 오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삼푸(21.2%), 침대(13.0%), 한방약(8.1%), 우유(6.2%), 빵(5.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전체 물가를 낮추는 데에 공업제품은 0.08%p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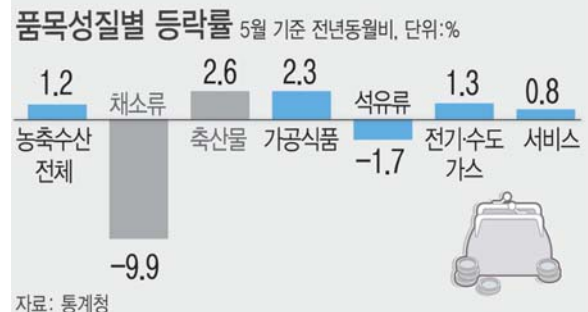
그간 유류세 인하 정책 영향에 큰 폭으로 하락하던 석유류 가격은 1.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해 15% 인하했던 탄력세율은 이번달 6일부터 그 폭이 7%로 축소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1.2% 올랐다. 농산물이 1.2% 올랐지만 온화한 기후에 공급이 원활했던 채소류 가격이 9.9% 내리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무(-48.5%), 배추(-33.3%), 감자(-30.5%), 호박(-26.6%), 딸기(-9.0%), 고등어(-8.5%), 마늘(-7.8%)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채소류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15%p 낮추는 데 기여했다. 행락철 수요가 늘면서 축산물 가격은 2.6% 올랐지만 수산물만 1.3% 내렸다. 돼지고기(1.4%)와 쌀(11.2%), 달걀(5.8%) 등이 올랐다.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1.3% 상승했다. 도시가스(-3.5%)와 지역난방비(0.5%)는 상승했지만, 상수도료(-0.3%)는 하락했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유지하던 서비스 물가 상승 폭은 0.8%로 떨어졌다. 지난 4월(0.9%) 1999년 12월(0.1%) 이후 처음으로 0%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개월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집세(-0.1%)와 공공서비스(-0.2%)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외식비(1.9%) 등 개인서비스 상승 폭도 축소된 탓이다.

특히 집세 상승률은 2006년 3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세는 0.3% 올랐지만, 월세가 0.5% 내렸다. 월세는 지난 2017년 11월 0.0% 하락한 후 19개월



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공급 과잉 현상이 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통계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전세 상승률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0%대로 내려앉았다.

공공서비스 중에선 휴대전화료(-3.4%)와 고등학교 납입금(-2.6%), 입학진료비(-1.7%) 등이 하락했다. 택시료(15.0%), 시외버스료(13.4%), 외래진료비(2.2%) 등은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에선 학교급식비(-41.3%)와 병원검사료(-7.3%), 해안단체여행비(-4.9%), 치과보철료(-3.1%) 등이 하락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내수 부진에 기인했다기보다 무상급식, 무상 교복, 무상 교육 등 복지정책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급식비와 더불어 남자학생복(-44.3%), 여자학생복(-41.9%) 등 하락 폭이 컸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김 과장은 "8개월 후에는 유류세 인하가 완전히 소멸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일부 상승할 것이기에 상방 요인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 대비 0.8% 올랐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80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2.1% 하락했다.

계절적·일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을 제거하고 물가의 장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0.8%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0.6% 상승했다.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 요인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생활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 기아차, 소형SUV 차명 '셀토스' 확정...인도서 언베일링

### 7월 국내 판매 시작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

기아자동차가 코드명 'SP2'로 준비해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차명을 '셀토스(SELTOS)'로 확정했다.

기아차는 이달 인도에서 셀토스 글로벌 언베일링 행사를 갖고 7월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셀토스'는 '스피디(Speedy)'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의 아들 셀토스(Celtos)'를 합성한 이름이다. 당당하고 강한 소형 SUV를 연상시킨다.

기아차는 차명 '셀토스'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운영, 새롭게 선보일 글로벌 소형 SUV가 갖춘 대담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주행성능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셀토스 출시를 계기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아우르는 SUV 라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는 ▲스포티지(준중형 SUV) ▲쏘렌토(중형 SUV) ▲모하비(플래그십 SUV)는 물론 ▲가성비 최고 엔트리SUV 스톨너 ▲하이테크 디자인 쏘울 ▲스마트 친환경SUV 니로 등을 운영 중이다.

셀토스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가 응축된 '컴팩트 시그니처'를 핵심 키워드로 개발됐다.

정통 SUV 스타일을 모던한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외장디자인, 젊은 고급감을 강조한 내장디자인, 기존 소형 SUV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즐겁고 편안한 주행성능 및 탁월한 공간감을 갖췄다. 또 탑승자의 감성적 만족감까지 고려한 첨단 신기술의 조화에 집중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는 주요 타겟인 당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며 "대담한 스타일과 젊은 고급감이 돋보이는 하이클래스 소형SUV 셀토스를 통해 자신감 있는 스타일과 라이프를 완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중산층, 서울 내집 장만에 14.1년

### 2008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소득보다 높은 집값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평균 1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B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서울의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비율(PBR배수)'은 소득·주택가격 3분위 기준 14.1년을 기록했다.

이 지표는 해당 지역의 소득 중 윗값으로 평균 집값을 나눈 것으로 중간소득 가구가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작년 같은 기간(12.1배) 대비 2.0배 포인트 증가하며, 관련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올해 1분기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말(14.3배)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 집값은 이미 일반인의 구매력을 초월한지 오래다.

서울 중위가구의 가구별 연소득은 평균 5532만원으로 무리하지 않고 이중 3분의 1(33%)를 주택 구입에 쓴다고 가정했을 때 구입가능한 주택은 3억8181만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에서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구입 여력을 의미하는 'KB주택구입 잠재력지수'(KB-HDI)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3.2를 기록해 전분기(12.9) 대비 나아졌지만 크게 위축됐다.

이는 중위소득 가구가 현재 금리(연 3.08%) 수준으로 은행 대출(20년 만기 원리금 상환 조건)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숫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KB국민은행이 시세를 조사하는 서울의 아파트 전체 재고량 138만4000호중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13.2%(18만3000호)뿐이라는 뜻이다.

뉴스스

## 중소 신입사원

### 37.2% 조기퇴사

#### 낮은 연봉 탓 1위

올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신입사원 10명 중 4명 정도는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국내 중소기업 678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1%가 채용했던 신입사원 중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의 신입사원 평균 퇴사율은 37.2%로 퇴사가 가장 많았던 직군은(복수응답) '영업직'이 응답률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객상담/TM(17.9%) ▲생산/현장직(17.5%) ▲판매/서비스(16.3%) ▲인사/총무직(15.9%) ▲IT/정보통신직(15.8%) ▲재무/회계(15.3%) 등의 순으로 회사를 떠난 신입사원이 많았다.

이들 신입사원들이 퇴사한 시기는 ▲입사 후 1~3개월 이내가 4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입사 후 4~6개월 이내(27.4%) ▲입사 후 1개월 미만(12.1%) ▲입사 후 7~9월 이내(6.8%) ▲입사 후 10~12개월 이내(6.2%) 순이었다.

신입사원들이 퇴사하는 이유 중에는(복수응답) '연봉이 낮아서'(44.2%) 퇴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32.4%) 퇴사한 비율도 높았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